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온 정부	
		배포일시	2019. 1. 23.(수) 총 3매(본문1)		
담당 부서	대중교통과	담당 자	• 과장 김기대, 사무관 권오혁, 주무관 최아진 • ☎ (044) 201-3823, 3828, 3829		
보도 일시		2019년 1월 2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2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전국 버스터미널, 디지털 범죄(불법촬영) 안전지대 만든다 안심화장실 인증제, 이행실태 점검 강화...최대 600만 원 과태료 부과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.

○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*이다.

* 19년 단년도 신규사업, 총 예산 2억원(국비 1억원, 지방비 1억원) 투입 예정

□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, 특히 지하철, 철도,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,

* 불법촬영 범죄현황: ('13) 4,823건 → ('14) 6,623건 → ('15) 7,623건 → ('16) 5,185건 → ('17) 6,465건

* '14년 전체 6,623건 중 지하철역·버스터미널,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은 1,590건(24%)

○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 장비를 지원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.

□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 하고,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원(국비 1억원, 지방비 1억원)을 투입, 전문 탐지장비 보급*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.

* 전국 295개 터미널 중 전문 탐지장비 미보유 터미널(260개)에 지원할 계획

○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화장실, 수유실,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, 휴가철·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(예: 2만명 이상)인 버스터미널에는 상주 순찰인력(경비, 청원경찰 등)을 편성·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.

□ 이와 함께,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,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.

*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, 안전 확보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(최대 600만 원)

○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('19.3.)하여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,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계단,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,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, 안내방송·전광판·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하여 교통 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- 현재 공항, 지하철, 철도,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교통시설에는 전문 탐지장비 및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올해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 보급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소관 교통 시설에 대해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고 평가된다.

붙임 :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개요 1부.

 공공누리 제4유형(정보제공)에 준함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권오혁 사무관, 최아진 주무관(☎ 044-201-3828, 38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□ 추진배경

- 최근 지하철, 철도,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범죄가 급증*함에 따라 이용자 불안감이 증폭

* 불법촬영 범죄현황: ('13) 4,823건 → ('14) 6,623건 → ('15) 7,623건 → ('16) 5,185건 → ('17) 6,465건

- 특히,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, 최근 촬영기기의 소형 및 위장화(화재경보기, 청소용 도구 등)로 인해 육안점검 곤란

□ 사업개요

- (추진목적) 전국 버스터미널(295개소) 내 화장실, 수유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*를 근절하고자 전문 탐지장비 지원사업 추진

- (지원대상) 전문 탐지장비 미보유 터미널*(260개소)

* 295개소 중 장비를 기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(35개소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- (사업기간) '19년 단년도 사업

- (사업예산) 총 2억원 (매칭사업: 국비 1억원, 지방비 1억원)

□ 향후계획

- 국고보조금 지자체 예산 배정(2회, '19.1, '19.4 예정)

-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관련 매뉴얼 배포('19.1)

-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명제 및 안심터미널 인증제 시행('19.3)